

‘자원 부국’ 우즈벡과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협력 강화

제1차 한-우즈벡 에너지대화 개최
MOU 체결 1년 3개월 만에 첫 가동 천연가스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 논의

정부가 중앙아시아의 대표적인 자원 부국 우즈베키스탄과 에너지 신산업 협력을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천영길 에너지정책실장은 7일 서울 석탄회관에서 아흐멧 호자예프 우즈베키스탄 에너지부 차관과 ‘제1차 한-우즈벡 에너지대화’를 개최하고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효율 등 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우즈벡은 천연가스, 금, 우라늄, 텅스텐 등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중앙아시아의 대표적인 자원부국으로 우리나라와 전통자원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신산업 분야 협력 잠재력이 높은 국가다.

이번 한-우즈벡 에너지대화는 지난 2021년 12월 우즈벡 정상의 방한을 계기로 양국 정부 간 체결한 에너지 대화 채널 구축 MOU에 따라 처음 개최되

는 공식 회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양국은 최근 러-우크라이나 사태 등 에너지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와 지속되는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양국의 에너지정책을 공유했다. 또, 우즈벡의 풍부한 자원과 한국의 높은 기술력을 토대로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등 에너지 신산업 협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우즈벡 정부는 향후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과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확대할 계획이다. 우즈벡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 풍부한 경험과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기업들의 사업 참여를 통해 우즈벡의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천영길 실장은 우즈벡 정부의 수입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 강화 규제 개정 절차 착수와 관련 우즈벡 정부가 규제의 개정 절차에 착수하고, 규제 개정이 전 우리기업의 수출제품 통관을 재개하

기로 한 결정에 사의를 표하고 양국 간 공식 채널을 통해 에너지 규제에 대해 지속 논의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앞서 우즈벡은 작년 12월 수입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 강화 규제를 발표한 이후, 우리 정부와 협의를 거쳐 수입품과 내수품 간 차별 완화를 위한 규제 개정 절차에 착수하기로 한 바 있다.

천 실장은 아울러, 우즈벡에 현지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대표적 애로사항인 ‘수르길 사업 가스대금 미수금’, ‘텅스텐 광산개발 인프라 지원’ 등에 대해 언급, 해당 사안들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우즈벡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천 실장은 “앞으로 양국이 한-우즈벡 에너지대화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에너지 안보 강화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양국 간 신뢰를 구축하고 상호호혜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한화진 장관, 영농폐기물 재활용시설 방문
한화진(오른쪽) 환경부 장관이 7일 경기 안성 영농폐기물 재활용시설을 방문해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있다. /뉴시스

무허가·무등록 반려동물 영업장 단속

징역2년, 벌금 2000만원 처벌 강화

정부가 그간 단속이 어려웠던 무허가·무등록 반려동물 영업장을 대상으로 불법·편법 영업에 대한 기획점검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일 최근 일부 반려동물 영업장에서 무분별한 생산·판매, 동물학대 등 문제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반려동물 영업관리 강화를 위해 ‘2023년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영업장은 반려동물 가구 증가에 따라 늘어 2021년 기준 약 2만개소가 운영 중이다. 하지만, 무허가·무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이 벌금 500만원에 그치고 영업장 폐쇄 등 강제조치 규정이 없는 등 불법·편법 영업 행위 근절에 한

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영업자 점검체계를 개편하고 실질적인 단속을 위해 동물보호단체 등 현장 전문가를 포함한 기획점검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4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강화되는 시설·인력 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중점 점검한다.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수입·판매·장모임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생산·수입·판매업 거래내역 신고제가 도입되며, 영업장 폐쇄 조항이 신설된다. 무허가나 무등록 업체에 대한 처분도 기존 벌금 500만원에서 징역 2년, 벌금 2000만원으로 높아지는 등 불법·편법 영업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세종=한용수 기자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5년간 170조 투자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발표
민관협업 기반 임무중심 투자 강화

정부가 5년 간 연구개발 부문에 17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2030년에는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우리나라의 기술 수준을 최고 선도국 대비 85%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1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2023~2027)’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5년간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의 연구개발 예산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민관협업 기반 임무중심 투자를 강화하기로 했다. 12대 국가전략기

술에 25조원을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또 탄소중립 이행을 통해 에너지 기술 혁신 및 저탄소 산업구조를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또 친환경 에너지 생산·저장·유통 기술 혁신, 연료 경쟁력 조기 확보 및 온실가스 처리기술 고도화 등으로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을 촉진한다는 전략이다.

두번째로는 ‘선택과 집중으로 혁신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인공지능(AI)·통신 등 혁신기술 기반 디지털 기술로 전환하고 인공지능, 5G·6G, 디지털 인프라, 정보보안, 자율주행 등 디지털 핵심기술을 개발해 산업·공공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고 신산업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또 기업혁신 역량이 기반한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기업 혁신역량 기반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부처간 협업을 통한 지원효과 제고 등으로 민간 성장 활력을 제고하고 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급망 대응을 통해 소·부·장 핵심기술 및 미래 먹거리를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바이오 제조혁신 및 노화·감염병 대응을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한다는 계획이다.

기초연구 분야에서는 분야별 지원 체계화, 안정적 인프라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학원 연구·교육 혁신, 산·학·연 협동 인재양성에 나서기로 했다. 또 국제협력 규모 및 범위를 확대하고 지속가능발전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채윤정 기자 echo@

공정위, 렌탈 강요 와이케이건기에 시정명령

대리점 6곳 위탁수수료 10만원 삭감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건설기계 판매·렌탈 사업자인 와이케이건기가 자신의 건설기계 위탁판매 대리점 중에서 렌탈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대리점에 대해 계약상 근거 없이 위탁수수료를 삭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와이케이건기는 2018년 1월~5월까지 미니 굴삭기 렌탈 업무 취급 여부에 따라 대리점을 차별, 렌탈 업무를 취급하지 않는 대리점 6곳에 판매 대수 당 위탁수수료 10만원을 삭감해 지급했다. 반대로 렌탈 업무를 취급하는 대리점 7곳에 대해서는 위탁수수료를 추가로 줬다.

공정위는 해당 대리점들이 와이케이

건기에 대한 매출 의존도가 거의 100%에 달하고, 평균 거래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등 사실상 대체 거래선 확보가 어려워 와이케이건기는 대리점들에 거래상 지위를 갖는다고 봤다. 또 와이케이건기의 행위는 계약서 규정에 없는 불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본사가 대리점에게 계약상 의무 없는 행위를 강제하고 일방적으로 위탁수수료를 삭감해 지급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대리점 관계에서 불이익 제공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김포공항 세계공항서비스평가 우수공항 선정 쾌거

한국공항공사가 운영하는 김포국제공항이 ‘2022년 세계공항서비스평가(ASQ, Airport Service Quality)’에서 우수공항으로 선정됐다.

국제공항협회(ACI)는 지난 한 해 동안 전 세계 291개의 주요 공항들을 대상으로 시설 청결도, 공항이용 편리성, 직원 친절도 등 공항경험에 대한 이용객 만족도를 평가해 69개의 우수공항을 발표했다.

중·대규모 평가군(연간 여객 수 2500만~4000만명)에 속한 김포공항은 공항 내 시설 위치에 대한 스마트한 안내서비스와 편안한 승객 대기시설, 신속한 보안검색 절차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허정윤 기자 zelkova@



기업중앙회-한국국제협력단 업무협약식
(왼쪽 3번째부터)이윤영 한국국제협력단 이사장 직무대행,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 등이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한국국제협력단

중소 해외 공적개발 시장 진출 맞손

업무협약 맺고 정보 공유 등 모색

중소기업중앙회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중소기업들의 해외 공적개발원조(ODA) 시장 진출 지원에 나선다.

중기중앙회는 7일 서울 여의도에서 KOICA와 중소기업 ODA 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중소기업 해외진출 관련 정보·데이터 공유 ▲중소기업 동반성장 상호협력 ▲상호홍보협력 및 공동사업 활성화 ▲국내외 조직 및 네트워크 공유 등을 위해 긴밀

히 협력하기로 했다.

중기중앙회 정윤모 상근부회장은 “우수한 기술과 잠재력을 가진 우리 중소기업이 국제사회와 연대할 수 있는 국제개발협력에 동참하면 좋겠다”며 “양 기관의 업무협약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이 해외 ODA 시장에 활발히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